이젠 가사 몰라도 노래방에서 걱정 없다

기술이사조차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참여 '철통보안' … 1년도 안돼 엔진개발 '특허'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허밍 동작만으로도 원하는 음악 콘텐츠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 등장했다.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개발업체 나요미디어는 노래 제목이나 가수 이름을 몰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을 읊조리는 행위만으로도 해당 음악을 검색해주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음악검색 엔진 '뮤진'을 특허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요미디어는 이번에 개발한 이 허밍 검색 엔진을 올 하반기부터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과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에 도곡동에 위치한 나요미디어 사무실을 찾았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잔치모임이나 노래방에서 노래제목이나 가수 명을 몰라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무안을 당한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주문형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개발업체인 나요미디어가 세계 최초로 허밍에 의한 상용 음악검색 엔진인 '뮤진(muGene)'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뮤진으로 특허를 받은 나요미디어의 주기현 사장은 2000년 미국 무선 통신 기업이었던 엑시오커뮤니케이션즈를 시스코에 1억5,500만달러(당시 약 1,860억원)의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매각, 600억원의 갑부로 등극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인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뮤진 개발로 또 한번의 신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고려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에서 컴퓨터공학석사학위를 딴 주 사장은 자신의 엑시오지분(전체의 약 33%)을 시스코에 넘기고 그동안 시스코에서 이사로 활동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두고 한국으로 건너와 평소 갖고 있던 아이템을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은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어 1년도 채 되지 않아 혁기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나요미디어의 허밍검색 솔루션 뮤진은 노래 제목이나 가수 이름을 몰라도 머리 속에 떠오르는 음악의 주요 멜로디를 허밍으로 흥얼거리면, 이에 해당하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명 등, 음악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콘텐츠 기반의 음악검색 방식이다.

나요미디어의 뮤진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뮤진 클라이언트는 두 소절 정도의 허밍으로 입력된 멜

로디로부터 음악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해 음악적 유전자로 변환하는 기능과 검색 결과로 얻어진 음악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뮤진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음악적 유전자를 이용해 나요미디어 고유의 음악 저장방식인 뮤진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노래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뮤진시스템의 특징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허밍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원하는 노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음악 전문가, 특히 작곡가들에게는 자신이 작곡한 멜로디의 창작성 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특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뮤진 클라이언트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 노래 반주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음악 검색을 통해 벨소리, 컬러링, MP3 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노래방 책자를 뒤지지 않고도 두 소절의 흥얼거림만으로 자동 반주에 의한 노래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기현 나요미디어 사장은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찾는 사용자의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공급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별 효과적인 콘텐츠 중심 검색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세계 제일의 온디멘드(On-Demand)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업체를 지향하는 나요미디어는 이번에 발표한 허밍 기반 음악 콘텐츠 검색 솔루션으로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 및 온라인 포털 사업자, 그리고 가정용 AV 및 노래반주기 제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선두그룹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요미디어는 이번에 개발한 허밍 검색 솔루션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하반기 중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제 사용자들은 허밍검색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기를 이용해 머리 속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흥얼거림으로써 원하는 노래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 WMF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뮤직 네트워크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나요미디어는 온라인 및 모바일 인터넷용 주문형 음악 솔루션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중심 엔터테인먼트 검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나요미디어는 음악의 유전적 특징 추출방식을 이용한 콘텐츠 중심 허밍 기반 검색 엔진과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현재 이동통신망에서의 허밍 검색을 통한 주문형 음악서비스 솔루션 및 온라인 인터넷 상에서의 콘텐츠 중심 음악 검색 엔진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온라인 포털 사업자, 기타 노래방 반주기 전문업체 및 홈AV 사 등 고객의 규모와 요구에 따라 최적의 맞춤 음악 검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nterview 주기현 나요미디어 대표이사

세계적 검색엔진으로 또 한번의 신화 꿈꿔

▶ 실리콘밸리에 가족을 두고 한국까지 와서 사업을 펼치게 된 배경은.

– 한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분야 기술이 전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고 개발 인력 또한 전세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대로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됐고 생각보다 훨씬 앞당겨 성과를 이뤄내 기쁘다.

▶ 독특한 허밍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 가장 큰 어려움은 보안문제였다. 평소 생각해 오던 아이템을 개발자와 공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혹 아이템이 유출돼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릴 수가 없었다. 그로인해 직원들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기술이사에게도 함께 일하겠다는 사인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알리지 않았다. 특허를 받을 때까지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하게 해 가족들이 이상한 회사로 오인한 이들도 많다. 보안유지로 인해 동종업계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자인연을 끊자는 말을 농담 삼아 할 정도로 보안유지로 인해 모든 직원들의 심적 어려움이 컸다.

▶ 앞으로 계획은.

–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변화될 것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검색 엔진으로 또 다른 신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 소망이다. 검색 엔진 개발에 성공했으니 이제 마케팅을 통해 '뮤진'이 널리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이동통신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뮤진'을 배포하려고 노력 중이다. 처음부터 동남아와 미국 진출 등 전세계를 상대로 싸울 계획을 갖고 사업에 뛰어든 것이므로 세계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구글처럼 세계적인 검색엔진 포털을 만들고 싶은 계획도 있다.